

‘세계 4위’ 벽 높았다... 한국 여자배구 이탈리아에 완패

2024 VNL 4차전서 0-3 패
2승 승점 6점으로 15위 마무리
세계랭킹 40위→35위권 올라
흔들린 수비·범실 등 아쉬워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이 국제배구연맹(FIVB) 2024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예선 최종전에서 완패했다.

페르난도 모랄레스(푸에르토리코)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16일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구슈시 서일본종합전시관에서 열린 VNL 3주 차 4차전에서 FIVB 세계랭킹 8위 네덜란드에 세트 점수 0-3(21-25 11-25 17-25)으로 졌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 VNL을 2승 10패, 승점 6으로 마감했다. 불가리아보다 1점을 더 얻어 16개 나라 중 15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3주간 열린 VNL 올해 예선에서 1주 차에 태국을 물리치고 승점 3을 따내며 VNL 30연패 수렁에서 힘겹게 빠져나왔다.

2주 차에는 불가리아에 2-3으로 패해 승점 1을 보냈고 3주 차에 프랑스를 3-2로 따돌리고 2승과 함께 승점 2를 추가했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승점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24연패를 당하며 최하위에 머물렀던 한국 여자배구는 3승(12패)과 승점 10을 따낸 2021년 대회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내 반등의 토대를 마련했다.

17일 VNL 예선 중료를 앞두고 올해 파리 올림픽 여자 배구에 출전할 12개 나라도 확정됐다.

개최국 프랑스를 필두로 지난해 세계 예선전에서 각 조 1, 2위를 차지한 도미니카공화국, 세르비아, 튀르키예, 브라질, 미국, 폴란드 7개 나라가 이미 파리행 티켓을 잡았다.

이어 이번 VNL까지 성적을 기초로 한 FIVB 랭킹으로 이탈리아(4위), 중국(6위), 일본(7위), 네

덜란드(8위), 케냐 5개 나라가 막자를 땀다.

케냐의 랭킹은 20위로 태국(13위)보다 낮지만,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륙의 나라 중 랭킹이 높은 나라에 우선권을 주는 FIVB 규정에 따라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 대표로 파리 올림픽 여자 배구 코트에 선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대등한 경기를 펼친 1세트에서 범실 10개로 아쉽게 주저앉았다.

2세트에서는 서브 리시브가 급격하게 무너져 힘없이 무너졌고, 3세트에서도 네덜란드의 타점 높은 강타와 페인트 공격에 수비가 흔들리며 고전했다. 세계랭킹 40위로 시작한 우리나라는 35위권으로 오를 예정이다.

아웃사이드 히터로 출전한 정지운(현대건설)은 이날 10점을 얻어 129점을 올리며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공격을 이끌었다.

VNL 예선 상위 7개 나라와 태국은 20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결승전을 가리는 8강 토너먼트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한국여자배구팀이 이탈리아와의 예선 최종전에서 0-3 완패를 기록하면서 발리볼네이션스리그를 2승 10패, 승점 6점으로 마감했다. <국제배구연맹 홈페이지 캡처>

한국 U-20 여자 핸드볼, 세계선수권 ‘우승의 땅’ 북마케도니아로



U-20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단이 15일 출국에 앞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광주도시공사 유정원·김서진, 조대여고 김보현 출격
19일부터 멕시코·아르헨티나·헝가리 상대 조별리그

광주도시공사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U-20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단이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 도전에 나섰다.

한국 20세 이하 대표팀은 19일 마케도니아에서 개막하는 제24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15일 밤 북마케도니아로 떠났다.

오세일 감독과 함께 광주도시공사의 '루키' 유정원, 김서진 그리고 조대여고 김보현이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춘다.

이번 대회에는 유럽 16개 팀, 아시아 6개 팀, 아프리카 5개 팀, 중남미 3개 팀, 북미-카리브해 2개

팀 등 32개 나라가 출전해 대결을 갖는다. 4팀씩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가 진행되고, 각 조 상위 2개국이 16강에 진출하게 된다.

다시 4개 조가 결선리그를 가진 뒤 조별 상위 2개 나라가 8강을 구성해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C조에 편성된 한국은 멕시코(19일), 아르헨티나(20일), 헝가리(22일)를 상대로 조별리그 일정을 소화한다.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는 1977년 창설됐으며 한국은 2014년 크로아티아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앞선 2022년에는 19위를 기록했고, 우승은 슬로베니아가 차지했다.

한국은 '북마케도니아'에서의 좋은 기억을 살려 이번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은 2년 전 북마케도니아에서 열린 U-18 세계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덴마크를 꺾고 대회 정상에 올랐다. 당시 대표팀에서 활약한 김서진과 함께 김가영(한국체대)·김세진(경남개발공사)·김지아(삼척시청)·박수경(SK슈가글라이더즈)·오예나(서울시청)·이혜원(부산시청)·차서연(인천시청) 등 '우승멤버'들이 2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U-20 대표팀으로 다시 뭉친다.

한편 대회는 19일부터 북마케도니아의 수도인 스코페에서 진행되며 6월 30일 우승팀이 가려진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남도체육회 수구팀,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 우승

경기도청·남부대 꺾어

전남도체육회 수구팀이 '제3회 광주 전국수영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광주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수구 경기는 총 네 팀이 출전해 리그전으로 치러졌다.

전남 수구 선수단은 1회전에서 경기도청 수구팀

에 15-11로 승리하고, 2회전에서 남부대 수구팀을 17-7로 가볍게 제치며 이번 대회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 선수단이 꺾은 경기도청 수구팀은 지난해 대회 우승팀이자 제 105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강팀이다.

우승을 이끈 전남도체육회 수구팀 감독은 "오랜만에 우승해서 기쁘다. 선수들이 열정적

으로 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훈련을 통해 경기력과 팀워크를 더 발전시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가오는 8월에 있을 대동령배 수구 대회에서도 반드시 금메달을 획득해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와이어 투 와이어’ 노승희, 한국여자오픈 제패

생애 첫 우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5년차 노승희(사진)가 메이저대회 DB그룹 한국여자오픈(총상금 12억원)에서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노승희는 16일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우승했다.

김수지를 4타차로 제친 노승희는 KLPGA투어에서 120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첫 우승을 따냈다. 노승희는 1라운드부터 최종 라운드까지 나를 내내 선두를 지킨 '와이어투와이어' 우승 기록까지 보냈다.

한국여자오픈에서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은 2006년 신지애 이후 18년 만이다. 한국여자오픈은 2010년까지는 3라운드 치러져 4라운드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은 노승희가 처음이다.

2020년 KLPGA투어에 데뷔한 노승희는 그동안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선수였다. 앞서 치른 119차례 대회에서 톱10 진입이 19번 뿐이었다. 하지만 19년 톱10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13번이 작년과 올해 나왔다.

특히 올해는 이 대회에 출전하기 전까지 12개 대회에서 한번도 킷 탈락을 당하지 않았고 5차례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5차례 톱10 가운데 4번은 5위 이내에 들었다.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따낸 사례는 작년 한화 클래식 챔피언 홍지원에 이어 1년 만이지만, 한국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올린 선수는 2015년 대회 박성현 이후 9년 만이다.

우승 상금 3억원을 받은 노승희는 상금랭킹 2위(5억4882만원)로 올라섰다. 대상 포인트 랭킹은 이예원을 밀어내고 1위가 됐다. 올해부터 메이저 대회 우승에 주어지는 대상 포인트가 늘어난 덕을 봤다.

노승희는 또 2027년까지 KLPGA투어 시드도 보장받았다. 페어웨이 적중률 2위와 그린 적중률 9위가 말해 주듯 정교한 샷을 구사하는 노승희는 어떤 대회 코스보다 페어웨이가 좁고 그린의 공략이 어려운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자신의 장기를 아낌없이 발휘했다.

노승희는 또 2027년까지 KLPGA투어 시드도 보장받았다. 페어웨이 적중률 2위와 그린 적중률 9위가 말해 주듯 정교한 샷을 구사하는 노승희는 어떤 대회 코스보다 페어웨이가 좁고 그린의 공략이 어려운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자신의 장기를 아낌없이 발휘했다.

노승희는 또 2027년까지 KLPGA투어 시드도 보장받았다. 페어웨이 적중률 2위와 그린 적중률 9위가 말해 주듯 정교한 샷을 구사하는 노승희는 어떤 대회 코스보다 페어웨이가 좁고 그린의 공략이 어려운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자신의 장기를 아낌없이 발휘했다.



지난해 한화 클래식 제패 이후 메이저대회 세 번째 우승에 도전했던 김수지는 1언더파 71타를 쳐 준우승을 거뒀다.

작년 이 대회 연장전에서 홍지원에게 졌던 김민별은 1타를 줄여 3위(8언더파 280타)에 올라 2년 연속 3위 이내에 들었다.

지난달 26일 E1 캐리티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품어 안았던 배소현은 1타를 잃었지만 4위(7언더파 281타)를 차지했다. 방신실은 공동 5위(5언더파 283타), 윤이나는 공동 7위(4언더파 284타)로 대회를 마쳤다.

작년 우승자 홍지원은 이날 이븐파 72타를 쳐 공동 10위(1언더파 287타)로 체면을 지켰다.

17살 아마추어 리안 말릭시(필리핀)는 공동 5위(5언더파 283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도시의 비메로
이창훈 개인전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비메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